

# ‘엘로우 군단’ 더 강해졌다

광주 FC와 전남드래곤즈가 ‘새얼굴’로 전력을 보강했다.

K리그1 무대로 복귀한 광주는 자유계약과 트레이드로 ‘창과 방패’를 강화했다.

광주는 5일 지난 시즌 경남FC에서 활약한 11년 차 공격수 김효기(33)를 자유계약으로 영입했다.

2010년 울산 현대에서 데뷔한 김효기는 전북 현대, FC안양, 경남에서 프로 통산 126경기에 나와 28골 9도움을 기록했다.

179cm·75kg의 날렵한 체구로 뛰어난 센스와 침착한 마무리가 장점으로 꼽힌다. 또 빠른 스피드와 드리블의 김효기는 측면 공격까지 가능하다.

특히 김효기는 신인시절에 임대 선수로 울산미포조선에서 박진섭 감독과 한솥밥을 먹은 경험이 있다. 당시 김효기는 소속팀 우승에 기여, 2011 내셔널리그 MVP를 수상했다.

김효기는 “신인시절 감독님을 보면서 많은 것을 배웠다. 광주에서 감독님과 함께할 축구가 기대된다”며 “광주를 보며 팀원들끼리의 강한 유대감과 끈끈한 조직력을 갖춘 팀이라고 느꼈다. 더 단단한 팀이 될 수 있도록 그라운드 안팎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광주는 앞서 3월에는 수비수 김영민(29)을 강원FC로 보내고 수비수 한용수(30)와 현금을 받는 트레이드를 단행했다.

184cm·80kg 탄탄한 체격의 한용수는 헤더와 판단력이 뛰어나고 대인 플레이와 볼처리가 좋은 중앙 수비수다. 빠른 스피드와 정확한 패스를 바탕으로 공격 전개 시 빌드업에 특히 강하다.

U-17 청소년대표팀과 올림픽대표팀(2011)에서도 실력을 발휘한 한용수는 지난 2012년 드래프트 1순위로 제주유나이티드 유니폼을 입었다. 데뷔 첫해 23경기에 나와 주목을 받은 한용수는 피로골절과 햄스트링 부상 등으로 부침을 겪은 뒤, 2016년 군복무를 위해 포천 시민축구단(K3리

### 광주 FC, 창·방패 강화

공격수 김효기 영입...28골 9도움  
날렵한 체구 경기 센스·측면 공격력 갖춰  
중앙 수비수 한용수 보강  
빠르고 정확한 패스로 빌드업 강점

### 전남드래곤즈 젊은 피 수혈

하승운 프로 2년차...첫 시즌 15경기 활약  
활발한 움직임...공격형 미드필더도  
최정훈, 고교 시절 주니어 리그 우승 주역  
발기술 좋고 영리한 움직임 강점

그)에서 뛰면서 재기에 성공했다.

한용수는 “다시 K리그1 무대에 나서는 광주의 도전에 함께 할 수 있어서 기쁘다”며 “부상으로 쓰러져 있는 동안에도 축구를 향한 간절함으로 버텼다. 좋은 경기력을 통해 인정받는 선수로 거듭날 것”이라고 밝혔다.

K리그2에서 ‘승격’을 위한 두 번째 도전을 앞둔 전남도 ‘젊은 피’로 전력을 재정비했다.

전남은 지난 3일 임대영입으로 하승운(22·FW)과 최정훈(21·MF)을 불러들였다.

포항스틸러스에서 온 하승운은 지난해 프로에 입단한 2년 차로 데뷔 시즌에 15경기에서 1도움을 기록하는 등 가능성을 보여줬다. 드리블을 통한 과감한 돌파와 활발한 움직임이 돋보이며, 연계 플레이도 좋아 기존 포지션인 윙 포워드뿐만 아니라 공격형 미드필더도 소화할 수 있다.

최정훈은 매단고 시절 2016 춘계연맹전, 왕중왕전, 2017 주니어리그, 왕중왕전 우승을 이끌던 주역으로 2018년 수원 삼성 유니폼을 입었다.

발기술이 좋고 영리한 움직임이 강점이며, 정규 리그 출전 기록은 적지만 2년간 R리그에서 32경기를 소화하며 경험을 쌓았다.

하승운은 “임대라는 단어를 지우고 1년 동안 전남을 위해 뛰고 싶다. 1년이지만 1부 경



한용수

김효기

최정훈

하승운

험도 했고, 이번 시즌에는 더욱 후회 없는 시즌을 만들겠다”고 전남에서 2020시즌을 보내게 된 소감을 밝혔다.

최정훈 역시 “올해 큰 도움이 되어서 전남이 1부로 승격할 수 있게 최선을 다해서 멋진 모습 보여드리겠다.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고 각오를 밝혔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달라지는 K리그

## 동남아 쿼터 도입...外人 최대 5명 5회 경고 누적시 1경기 출장 정지 상주 상무 ‘U22 의무 출전’ 적용

새해를 맞은 K리그에 새로운 변화가 생긴다.

동남아시아 쿼터가 신설되고, 경고 누적에 따른 출장정지 기준이 달라진다. 아산은 시민구단으로 전환되며 상주 상무에도 ‘U22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되는 등 2020시즌 새로운 변화가 있다.

2020시즌 K리그에 동남아시아(ASEAN) 쿼터가 새로 도입된다. 이에 따라 각 구단은 최대 5명의 외국인 선수(국적 불문 3명+ AFC가맹국 1명 ASEAN 가맹국 1명)를 보유하게 된다.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미얀마, 베트남, 필리핀, 싱가포르, 라오스, 캄보디아, 브루나이 등 10개국 선수를 동남아시아 쿼터로 영입할 수 있다.

3회 경고 누적마다 1경기 출장 정지가 내려졌던 ‘3-3-3’ 규정이 ‘5-3-2’로 달라진다.

올 시즌부터는 처음 5회 경고 누적 시 1경기 출장 정지 징계가 내려진다. 이후 3회 경고 누적시 1경기 출장 정지, 그다음부터는 2회 경고 누적에도 출장정지가 부과된다. 10회 이상 경고가 누적될 경우에는 출장 정지와 함께 추가적인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아산은 완전한 시민구단으로 K리그2에 참가한다.

아산은 지난 시즌 경찰 의무복무선수와 일반 선수로 팀을 꾸려 리그에 참가했지만, 경찰축구단이 해체되면서 2020시즌에는 시민구단으로 된다.

시민구단 전환에 따른 선수지원 대책도 마련됐다.

K리그 1·2 21개 구단의 보호선수 외에서 무상 임대 또는 이적료 감면 형태로 각 팀 당 1명, 총 5명을 영입할 수 있다. 보호선수는 K리그1 구단은 20명, K리그2 구단은 16명까지 지정할 수 있다. K리그2 구단과의 계약이 종료된 선수는 각 팀당 1명, 총 5명 한도로 보상금 없이 영입할 수 있다.

군 팀인 상주 상무에도 U22선수 의무 출전 규정이 적용되면서, 상주는 올 시즌부터 경기 엔트리에 22세 이하 선수를 최소 2명(선발 1명, 후보 1명) 포함해야 한다.

FA 외국인 선수의 이적료는 폐지된다.

2020시즌부터 해외클럽에서 이적료를 지급하고 영입한 외국인이 계약기간 만료 후 K리그 다른 구단에 입단할 경우 앞으로 이적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2020년 현재 계약기간이 남아있는 외국인 선수 계약까지는 기존 규정이 적용된다.

이외에 K리그 선수의 최저기본급이 2000만원에서 2400만원으로 인상된다. 자유선발 신인선수 유형 중 기본급 2000만원으로 정해져있던 자유선발 ‘B등급’은 폐지된다.

출장정지 제재 중이거나 경기 중 퇴장당한 지도자는 그라운드 밖에서 전자장비를 이용해 벤치에 지시를 내릴 수 없게 된다.

홈 클럽은 경기장 전체 좌석수 중 최소 5% 이상을 원정 클럽 응원 관중을 위해 배분해야 하며, 선수단 벤치에 필수적으로 지붕을 갖추도록 한 규정은 삭제해 지붕으로 관중의 시야를 가리는 사석 발생 문제를 개선했다. 또 각 구단이 자율적으로 참가했던 K리그 주니어 저학년리그(U14, U17)의 경우 전 구단 참가가 의무화됐다. 후기리그는 자율참가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 유럽축구, 이강인 ‘주목’

### ‘2020년 주목할 유망주 50명’에 뽑혀

한국 축구의 미래로 손꼽히는 이강인(19·발렌시아)이 유럽축구연맹(UEFA)이 선정한 ‘2020년 주목할 유망주 50명’에 이름을 올렸다.

UEFA는 3일 홈페이지를 통해 이강인을 포함한 ‘2020년 주목할 유망주 50명’ (Fifty for the future: UEFA.com’s ones to watch in 2020)의 명단을 발표했다.

UEFA는 “2020년 빅뉴스가 될 수 있는 최고의 젊은 인재 50명을 뽑았다”라며 “각 대륙의 UEFA.com 통신원들에게 유럽에서 떠오르는 스타들을 추천받았다”고 설명했다.

UEFA는 이강인을 50명 가운데 한 명으로 선정하면서 “발렌시아의 공격형 미드필더인 이강인은 지난해 9월 스페인 프리메라리가 데뷔전을 치렀고, 같은 달에는

한국 선수로는 최연소로 UEFA 챔피언스리그에도 출전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이강인은 2018 국제축구연맹(FIFA) U-20 월드컵에 출전해 ‘막내형’이라는 별명으로 사랑받으면서 한국 축구의 준수성에 큰 힘을 보탤었다.

이강인은 U-20 월드컵에서 한국 남자선수로는 최초로 FIFA 주관대회 골든볼을 수상하고, 2019 아시아축구연맹(AFC) 아워즈에서 유망주상을 받는 등 국제무대에서 뛰어난 기량을 인정받았다.

이강인과 함께 부카요 사카(아스널), 트로이 패럿(토트넘), 야신 아드리(보르도), 안수 파티(바르셀로나), 메이슨 그린우드(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이 50명의 명단에 포함됐다.

/연합뉴스

## 아프리카 아마추어팀 ‘칼레의 기적’ 도전

### 프랑스령 생피에로아, 프랑스컵 64강서 2부리그 팀 2-1 제압 ‘파란’

아프리카 프랑스령 섬의 작은 축구팀이 프랑스컵(쿠프 드 프랑스) 32강에 진출해 ‘제2의 칼레의 기적’을 꿈꾸게 됐다.

아마추어 축구팀 JS 생피에로아는 5일(한국시간) 프랑스 니오르의 르네 가이아르 경기장에서 열린 니오르와의 2019-2020 쿠프 드 프랑스 64강전에서 2-1로 이겼다.

이로써 생피에로아는 1989년 프랑스령 기아나에 이어 프랑스령 팀 중 역대 두 번째로 쿠프 드 프랑스 32강에 오른 팀이 됐다.

생피에로아의 연고 도시 생피에르는 아프리카 마다가스카르에서 동쪽으로 약 720km 떨어진, 제주도보다 조금 작은 섬 레위니옹에 있다.

사탕수수 재배가 주력 산업인 레위니옹은 과거 프랑스 식민지로 전락한 나라들의 왕이 유배되던 외딴 섬이다.

생피에로아 역시 존재조차 알려지지 않은 작은 팀이다. 생피에르 출신으로 현재 웨스트햄 유나이티드(잉글랜드)에서 뛰고 있는 드미트리 파파가 이 팀이 배출한 유일한 스타다.

하지만 서포터들의 열성은 프로팀 못지않았다. 니오르와의 경기를 ‘직관’하기 위해 100여명의 팬이 거의 1만km를 비행하는 원정길에 올랐다.

생피에로아는 2-1 완승을 하는 역사적인 장면을 연출해내며 열정에 보답했다.

생피에로아는 선제골을 넣었고, 실점은 자책골이었다.

생피에로아의 32강 상대는 만만치 않다. 황의조의 소속팀 지롱댕 보르도나 마르세유 등 리그양(1부 리그) 팀과 상대한다.

쿠프 드 프랑스에서는 2000년 4부리그 소속의 칼레가 결승까지 진출해 준우승하는 대이변이 벌어진 바 있다.

생피에로아가 ‘레위니옹의 기적’을 연출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될 전망이다.

/연합뉴스